

낭만(Roman) 엘레강스(Elegance)
 노마드(Nomad) 엽기(Bizarre)
 느림(Slowness) 예술(Art)
 루키즘(Lookism) 웰빙(Well-being)
 모던(Modern) 유머(Humor)
 미니멀리즘(Minimalism) 키덜트(Kidult)
 미래주의(Futurism) 키치(Kitch)
 빈티지(Vintage) 패러디(Parody)
 양성성(Androgyny) 퓨전(Fusion)
 에로티시즘(Eroticism) 하이테크(Hi-Tech)



04000

9791130401577

ISBN 979-11-304-0157-7



값 9,800원

www.commbooks.com

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지평

콘셉트 커뮤니케이션

이현영

330

331.5
0948



대사회를사는인간은언제어디서든소통하지않고살아갈수없
 인간의모든행위가무제한적이고다양한형태를갖는것은물론
 고반드시커뮤니케이션을수반한다.그런데커뮤니케이션에서
 장중요한요소는정확성과신속이다.정보를전달하는자와전달
 는사람들이서로빠르고정확하게소통을하기위해서는서로의콘
 트에대한이해가중요하다.콘셉트는소통의집을짓기위해서선
 해야하는초석이라할수있다.서로가어떤소통의집을지을지에
 라콘셉트는달라지기때문이다.완성될집의형태에맞게초석을
 택하고적합한곳에잘위치시키는것은전달할내용에따라적절한
 선택을선택하고사용하는것과같다.

커뮤니케이션이해총서

콘셉트 커뮤니케이션

이 현 영

성동구립성수도서관



5-AM017800

커뮤니케이션서부스

13	예술, Art	81
14	웰빙, Well-being	89
15	유머, Humor	95
16	키덜트, Kidult	101
17	키치, Kitch	107
18	패러디, Parody	113
19	퓨전, Fusion	121
20	하이테크, Hi-Tech	131

01

낭만, Roman

형식보다는 정신에 우위성을 부여하는 의미로, 다양성을 인정하며 느낌, 충동, 열정 등으로 자유로운 창조력을 표현하는 콘셉트다.

억제되지 않는 열정

“그것이 남자(여자)의 로망이다”라는 말을 많이 한다. 이 때 로망(roman)은 무슨 뜻인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로망은 때로 꿈이나 소망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원래 의미는 조금 다르게 유래하였다.

낭만(浪漫), 즉 로망(roman)이라는 단어는 중세 프랑스어 ‘romanz’에서 유래했다. 12~13세기 연애담(戀愛談)이나 무용담(武勇談) 따위의 통속소설(通俗小說)을 의미한다. 17세기 영어로는 romantic, 프랑스어로 romantique, 독어로 romantisch라는 형용사가 만들어져서 공상적, 모험적, 전기적(傳奇的)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으며, 현대 사회에서는 꿈이나 공상의 세계를 동경하고 감상적인 정서를 중시하는 창작 태도를 의미하기도 한다.

‘낭만주의(浪漫主義)’라는 뜻의 로맨티시즘(romanticism)은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중반에 걸쳐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에 널리 전파된 예술 사조다. 이 사조는 고전주의와 계몽주의에 대한 반발로 시작되었다. 고전주의(古典主義)가 조화와 균제의 미를 사랑하고 이성(理性)의 통제를 존중하는 반면, 낭만주의는 이성보다는 감상에 빠져들거나, 개성과 자아를 표현하는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태도로 억제되지 않는 자유로움과 열정(熱情)을 담고 있다.

현대인들의 이상 추구

낭만주의 문학(文學)은 질서와 논리에 대한 반항, 감성(感性)의 해방, 무한에 대한 동경과 불안 등을 특징으로 한다. 프랑스 대표적인 낭만주의 작가인 빅토르 위고(Victor-Marie Hugo, 1802~1885)는 『노트르담의 꼽추(Notre-Dame de Paris)』, 『레미제라블(Les Misérables)』 등의 소설을 통해 사회 평등 문제를 다뤘다. 비천하고 저속한 풍습을 힘차게 모사한 사실주의적이며 서정적인 소설들이다.

낭만주의 화가들은 인간의 본질과 인간을 둘러싼 외부 세계와 인간 내면의 세계를 동시에 그렸으며, 극적이고 잔혹한 장면, 어두운 광경을 선호하는 명암법(明暗法)을 중시했다. 대표적인 작품은 프랑스 낭만주의 화가 외젠 들라크루아(Eugène Delacroix, 1798~1863)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Liberty Leading the People)〉이다. 이 그림은 1830년 7월 28일 발발한 프랑스의 7월혁명에서 시민군을 지휘하는 서민 여신의 형상을 통해 진정한 자유, 평등, 박애의 자유주의 구호를 묘사하고 있다. 들라크루아가 1830년 10월 18일 형사를 양리에게 보낸 편지에 이 작품에 관한 글이 있다. “나는 현대적인 주제, 즉 바리케이트전(戰)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조국의 승리를 위해 직접 나서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조국을 위해 이 그림을

노마드, Nomad

디지털 기기를 들고 다니며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로, 제한된 가치와 삶의 방식에 매달리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바꾸어 가는 유목민이다.

자유롭고 창조적인 인간형

21세기는 새로운 유목민(遊牧民, Nomad)의 시대라고 한다. 현대인들은 휴대전화, 노트북, PDA 등과 같은 첨단 디지털 장비를 휴대한 채 자유롭게 유랑한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 이후 시공간의 제약 없이 인터넷에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찾고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것은 이제 일상 생활로 정착되었다. 캐나다 미디어학자 마셜 매클루언(Marshall McLuhan, 1911~1980)은 30여 년 전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이면서 전자 제품을 이용하는 유목민이 될 것이다”라고 예언했다.

‘노마드’는 ‘유목민’이란 라틴어로 프랑스 철학자 질 들뢰즈(Gilles Deleuze, 1925~1995)가 그의 저서 『차이와 반복(Difference and Repetition)』(1968)에서 ‘노마디즘(nomadism)’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데서 유래하였다.

유목민은 원래 중앙아시아, 몽골, 사하라 등 건조·사막 지대에서 목축을 업으로 삼아 물과 풀을 따라 옮겨 다니며 사는 사람들을 말하지만, 현대의 유목민은 디지털 기기를 들고 다니며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을 말한다. 또한 노마드란 공간적인 이동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버려진 불모지를 새로운 생명의 땅으로 바꿔 가는 것, 곧 한자리에 앉아서 특정한 가치와 삶

의 방식에 매달리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바꾸어 가는 창조적인 행위를 지향하는 사람을 뜻한다.

이동하는 지만 살아남는다

오늘날 공항이나 역 대합실, 호텔 로비에 가 보면, 일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들은 무릎 위에는 노트북을 올려놓고, 호주머니에는 휴대전화를 넣어 두고, 귀에는 헤드셋을 착용한 채 끊임없이 행동하고 있다. 이는 1990년대 말 독일의 미래학자 군돌라 앵리슈(Gundula Englisch)가 『잡 노마드 사회(Jobnomaden)』에서 미래의 모습을 예측한 것이다.

‘잡 노마드(job nomad)’는 직업(job)을 따라 유랑하는 유목민(Nomad)이란 뜻의 신조어로 과거의 직업 세계에 등을 돌린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들은 평생 한 직장, 한 지역, 한 가지 업종에 매여 살지 않는다. 승진 경쟁에 뛰어들지도 않고, 회사를 위해 목숨 바쳐 일하지도 않는다. 이들 신종 부류는 자신의 가치를 정확히 분석하고 자신을 위해 그것을 이용한다. 현대의 노마드들은 첨단 정보 통신시대의 디지털 시대에 자유롭게 창조적인 사고방식의 인간형이라 할 만하다.

잡 노마드(job nomad)와 더불어 하우스 노마드(house

임없이 변화 현대인들에게 생긴 콘셉트로 소통되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용섭(2013). 『라이프트렌드 2014: 그녀의 작은 사치』. 유광형 임대록 '하우스 노마드'의 탄생. 부키.
- 김종래(2002). 『CEO 창기스칸』. 삼성경제연구소, pp.138~139.
- 배한철(2009.09.24). 에세이집 '시프트...' 펴낸 오세훈 서울시장. 《매일경제》.
- 백형찬(2007). 『글로벌 리더-세계무대를 꿈꾸는 젊은이들이 알아야 할 아홉 가지 원칙: 살림지식총서 312』. (주)살림출판사.
- 서진우(2014. 01. 12). 특정시간 할인 쫓는 '핫딜 노마드족' 뜬다. 《매일경제》.
- [시론] 21세기를 이끌어갈 '노마드족' 황광웅(건화 대표이사 회장), (2014.02.02). 《건설경제신문》
- 이재정·박은경(2004). 『라이프 스타일과 트렌드』. 예경.
- 한진주(2014. 01. 02). 격동하는 집의 경제학①] 집, 노마드족 시대. 《아시아경제》, 14면 TOP.
- pmg 지식엔진연구소(2012).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斗山東亞百科事典研究所 編(2002). 『두산세계대백과사전』. 두산동아.

느림의 향유는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지향하여, 자기 충만, 영혼의 해방과 같은 정신적 가치를 의미한다.

부드럽고 우아한 배려

다양한 미디어들에서 더 이상 지체해서는 큰일 날 것처럼 '빠름'이라는 단어를 주문처럼 하루 종일 내뿜는다. 마치 '느림'은 우리 시대의 낡은 가치들 중에서도 가장 뒤떨어진 것처럼 말이다.

블레즈 파스칼(Blaise Pascal, 1623~1662)은 『팡세(Pensées)』에서 “인간의 모든 불행은 고요한 방안에 들어 앉아 휴식할 줄 모르는 것”이라 하였다. 이는 오늘날 매스 미디어의 발달로 현재를 사는 모든 인류의 불행인지도 모른다. 특히 한국 사회는 다른 나라에 비해 모든 것이 속도와 스피드로 향해 왔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느림의 문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원인으로 윤은기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총장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언급했다. “첫째, 초고속 성장과 치열한 경쟁 사회다 보니 스트레스가 최고조에 이른 것이고, 둘째 이 세 인간의 본질인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연 회귀적 열망일 것이다.” 이런 원인을 보면, 인간이 하나의 자연에서 와서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소망은 당연한 듯하다.

‘느림’이란 콘셉트는 1995년 밀란 쿤데라(Milan Kundera, 1929~)의 『느림』이라는 소설에서 나오기 시작하여,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작가인 피에르 상소(Pierre Sansot,

1928~)의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에서 더욱 깊이 있게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느림은 빠른 속도로 박자를 맞추지 못하는 무능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상소는 “느림은 부드럽고 우아하고 배려 깊은 삶의 방식이며,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나이와 계절을 아주 천천히 아주 경건하게 주의 깊게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 조금 느리게 살면서 삶을 충분히 즐기고자 하는 심리적 경향이고, 천천히 현재의 삶을 음미하고 즐기려는 생활 태도다.

자연 친화적인 삶

느림 관련 상품들은 인간에게 건강과 진정한 유익함을 주는 것들에서 나타난다. 아마도 그 첫째가 먹거리일 것이다. 100세 시대에, 건강하게 살고자 좀 비싸더라도 품질 좋은 프리미엄 제품을 찾게 된다. 유기농(有機農), 천연, 프리미엄 등의 단어가 들어간 제품들이나 무항생제(無抗生劑), 무농약, 무성장촉진제 등 무(無) 자가 들어간 식품들도 이에 해당된다. 그래서 천연 유기농 상품들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주거 환경도 도시보다는 농촌의 삶을 선호한다. 슬로시티(Slow City)는 민간에서 주도하는 범지구적인 운동으로

아 진정한 웰빙(Well-being)을 누리고자 하는 현대인의
염원이다.

참고문헌

- 김아람 · 김종진(2011). 테니쉬 모던을 바탕으로 한 아르네 야콥센의
공간디자인 특성.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Vol. 20. No. 2,
39~46.
- 김현돈(2010). 느린 것이 아름답다!: 느림의 미학. 『대동철학회지』,
제51집, 121~140.
- 밀란 쿤데라 저, 김병욱 역(2012). 『느림』. 민음사.
- 윤은기(2009. 03. 19). 회화나라-행복을 만드는 '느림의 미학'.
《포스코 신문》.
- 이규성(2013. 11. 11). 길 위의 집-제주 게스트하우스 200.
《아시아경제》.
- 이재정 · 박은경(2004). 『라이프 스타일과 트렌드』. 예경.
- 피에르 생소 저, 김주경 역(2000).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 동문선.
- pmg 지식엔진연구소(2012).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斗山東亞百科事典研究所 編(2002). 『두산세계대백과사전』.
두산동아.

외모가 개인 간의 우열과 성패를 가름한다고
믿어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외모지상주의를 일컫는 용어다.

외모가 성공의 잣대

루키즘(lookism)은 'look'과 'ism'이 합성된 단어로 외모 지상주의에 해당하는 단어다. 이 용어는 미국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인 윌리엄 새파이어(William Safire, 1929~2009)가 2000년 8월 주간지 뉴욕 타임스(New York Times)의 칼럼 섹션 '랭귀지(On Language)'에서 인종·성별·종교·이념 등에 이어 새롭게 등장한 차별 요소로 지목하면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용어의 의미는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외모가 개인 간 우열과 성패를 가름한다고 믿는 콘셉트다. 다시 말해, 외모가 연애·결혼 등과 같은 사생활은 물론 취업·승진 등 사회생활 전반까지 좌우한다고 믿어서 현대인들은 외모를 가꾸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2000년 이후 루키즘이 사회문제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성형수술을 한 국가라는 조사 결과와 네티즌들의 열광적인 참여 속에 탄생한 인터넷 열풍을 비롯하여 몸짱 열풍, 성형 중독증, 다이어트 강박증 등은 우리사회에 루키즘이 반영된 결과다.

신화가 된 외모

외모가 성공의 기준이 되고 인정받는 사회 분위기는 영화, 결혼 정보 업체, 취업 조건 등에서 사례를 볼 수 있다.

2006년 배우 김아중이 주인공으로 출연한 〈미녀는 괴로워〉라는 영화가 있다. 이 영화는 풍성한 여주인공 한나가 성형수술을 해서 예쁘고 날씬한 제니로 변신하기 전과 후의 이야기가 주된 줄거리다. 성형 전 풍뎡하고 못생긴 한나는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무시당하고 욕을 먹지만 성형 후 예뻐진 한나, 즉 제니는 어떤 잘못에도 비난받지 않고 격려를 받는다. 스토리는 코믹하게 전개되었지만,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한 씬출한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는 비단 영화만이 아니다. 현재 외모는 직장을 얻기 위한 하나의 '스펙'이 되어 버렸다. 학교 성적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면접에서 떨어진다. 외모 때문이다. 김기란·최기호(2009)에 의하면, 취업 준비생들은 영어 토익 점수를 올리는 것보다 면접관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 줄 수 있는 성형수술을 하는 것이 취업 준비의 최우선 순위라고 생각하여 성형수술과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결혼 조건도 예외가 아니다. 《파이낸셜뉴스》(2011.

사회질문사진』. 북멘토.

정지우(2011. 11. 08). 결혼정보회사의 등급표 '망령'..185cm에 75kg, 1등급. 《파이낸셜뉴스》, 17면 TOP.

정지우(2011. 11. 20). '여성 등급표' 키 170cm, 몸무게 55kg,

흉터없으면.. '상' (上) 급. 《파이낸셜뉴스》, 2면 TOP.

조용호(2012. 09. 23). [설왕설래] '투키즘'. 《세계일보》, 31면3단.

斗山東亞百科事典研究所 編(2002). 『두산세계대백과사전』.

두산동아.

05

모던, Modern

모던은 그 자체가 가지는 단순함과 간결성으로 인해 간혹 단조로운 느낌을 가지게 될 수 있으므로 사람들로부터 관심과 애정을 유발시키는 형태나 디자인이 부가될 필요가 있다.

냉철한 이성과 과학

어떤 대상을 두고 '모던하다' 또는 '클래식하다'라고 양분하여 말하곤 한다. 대체로 '모던하다'라는 말이 주는 의미는 '도회적, 현대적, 첨단적, 선진적, 세련됨, 과학적'을 뜻한다. 반면 '클래식하다'는 '고전적, 진부함, 오래된, 정통의'를 뜻한다.

모던(modern)이란 단어는 19세기 말 20세기 초 유럽에서 일어난 '모더니즘(modernism)'이라는 예술운동에서 나온 말이다. 전통적인 권위와 사고방식을 거부하고 주관과 감정을 배제한 냉철한 이성과 과학적 관점만을 취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다 보니 '모던'이란 보통 단순한 형태나 기능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한편 모던은 공업 문명에 내재하는 획일화된 비인간성을 담기도 했는데, 이는 제1차 세계대전 후, 디자인 생산물들이 '표현이 아니라 기능'이라는 개념을 디자인의 기본 원리로 삼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한 기능에 유일 형태가 결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기능'을 강조해 획일화를 낳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본 개념일뿐, 모던 디자인의 중심은 인간성 또는 휴머니즘과 함께 고양되었다. 모던 콘셉트는 현대 대중에게 소통되는 상업상 이유뿐 아니

라 인간과 그 생활을 풍요롭게 한다는 목표 속에서 변화되어 왔다.

지적 아름다움

모던(modern) 이미지의 특징은 다소 차갑고 간결한 미를 추구하고 현대적이며 도시적인 감각이 돋보이는 것이다. 부드러움이나 장식성을 배제하고 하양, 검정, 회색의 무채색과 차가운 색을 기초로 색상대비와 명도대비가 강한 보색이 선호된다. 모던한 이미지를 대표하는 색채는 무채색 계열과 청록색, 파란색이다.

패션에서 모던은 새롭고 특이한 형태를 지적인 멋으로 승화시켜 표현하거나, 대비되는 강한 배색을 사용하여 현대적 이미지를 표현한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커리어 우먼이 많은 뉴욕에서 이러한 패션이 정착되었다. 모던풍의 옷차림을 즐기는 여성들은 수트(suit)를 주로 입는데 이 현대적인 여성용 슈트는 마(麻)와 면(綿) 같은 천연 소재를 중심으로 사용하고 기하학 무늬, 스트레이트 라인을 많이 써 도시 감각을 가미한다.

건축과 인테리어 분야에서도 모던 양식을 배놓을 수 없다. 현대인들은 빠르게 흐르는 많은 정보와 복잡하고 다양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단순하고 간결하게 정

미니멀리즘, Minimalism

미니멀리즘은 가장 단순하고 간결함을 추구하여 단순성, 반복성, 물성 등을 특성으로 절제된 형태 미학과 본질을 추구하는 콘셉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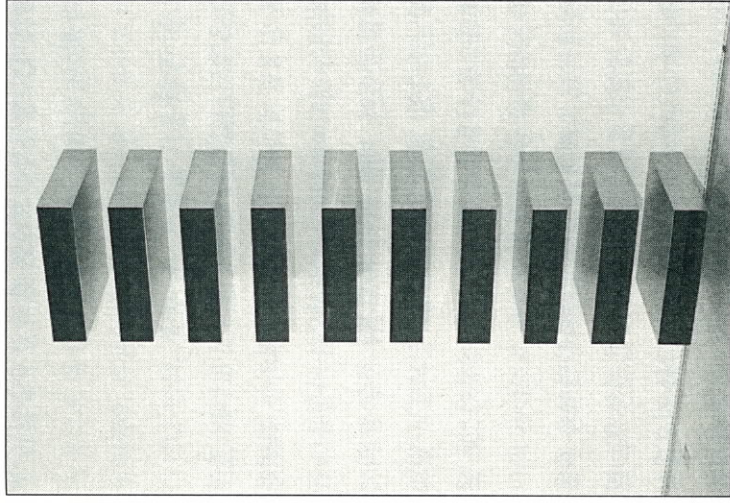
단순함이 미덕

21세기 현대인들은 급속도로 변하는 정보사회의 복잡다단한 사회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로 인해 정보의 홍수 속에 피로감을 느껴 단순하고 간단한 형태나 구조를 선호하게 된다. 모니터에 본체까지 합체된 컴퓨터의 사용이 증가한다든지, 검색창만 보여 주는 구글(Google) 사이트가 인기를 끄는 것은 복잡함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현대인들의 마음이다.

미니멀리즘(Minimalism)은 '최소 한도의, 최소의, 극미(極微)의'라는 minimal에 'ism'을 덧붙인 '최소한주의'라는 의미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심미적 원칙에 기초를 두고 장식적인 기교나 각색을 최소화하고 사물의 근본만을 표현했을 때 진정한 리얼리티가 달성된다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

1960년대 후반 미국의 젊은 화가나 조각가들은 최소한의 색상을 사용해 기하학적인 형태만을 표현하는 단순한 형태의 미술 작품을 표현했다. 한 예로 미술비평가이자 미술가이기도 한 도널드 저드(Donald Judd, 1928~1994)는 그의 작품에서 하나의 기본 단위 또는 모듈을 적게는 두 번에서 많게는 백스무 번까지 반복 표현했다. 이러한 반복은 별다른 기교가 없으며 그저 하나 다음 하나를

<그림 5> 무제 (untitled)



출처: Donald Judd(1967)

참고문헌

- 강준만(2007). 『선사인 논술사전』. 인물과사상사.
- 김동철(2007). 디지털시대의 공간미니멀리즘에 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Vol. 2 No. 2, 33~42.
- 김옥동(1992).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론: 문학/예술/문화』. 민음사,
153~156.
- 마정미(1997). 『광고, 거짓말쟁이: 마정미의 게릴라식 광고 읽기』.
살림.
- 오미환(2005. 06. 08). 단순 패턴 반복... '비움의 미학' 담겨:
미니멀리즘 음악 대가 미(美)라이히 12일부터 내한 공연.
《한국일보》.
- 이재정·박은경(2004). 『라이프 스타일과 트렌드』. 예경.
- 자봉철(2007. 03. 02). key word 미니멀리즘. 《조선일보》, D5면.
- 최연진(2007. 10. 17). "감쪽한 게 좋아" IT 미니멀리즘 열풍: 본체
없는 PC, 소형 PSP 등 부피 줄인 제품 쏟아져. 《한국일보》.
- 홀름 프리베 · 사샤 로보 저, 두행숙 역(2007). 『디지털 보헤미안:
창조의 시대를 여는 자』. 크리에디트.
- 斗山東亞百科事典研究所 編(2002). 『두산세계대백과사전』.
두산동아.

미래주의는 기계 문명이 가져온 현대 도시의
운동성과 속도감을 새로운 미(美)로 표현하려는
것으로 특히 산업, 에너지, 속도, 빛의 감각 등
인간과 기계가 공존한다는 믿음의 표현이다.

미래로 향한 진보

‘미래(future)’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시대와 불안을 동시에 수반한다. 그래서 이전에 미래를 그린 영화는 우주복 같은 옷을 입고, 번쩍이는 빛이 발광하는 공간에서 클리판으로 자동 키프로되는 주저 공간에 사는 모습이거나, 환경오염으로 폐쇄해 있는 지구의 모습이었다. 이처럼 우리는 미래에 대해 늘 꿈을 꾸고 예측해 왔다.

미래주의(Futurism)는 현대인의 생활과 감성을 침단의 미래 기술력으로 풀어 가려는 하나의 방편이고 콘셉트다. 한국에서는 미래주의라는 용어보다 퓨처리즘(Futurism)란 용어가 더 익숙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IT 산업이 고도로 성장한 2007년에 이 열풍이 생활 곳곳에 불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미래주의(futurism)는 1910년 무렵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전위예술(前衛藝術, avant-garde) 운동으로 시작되었다. 즉, 전통적인 예술을 부정하면서 도시와 기계 문명의 역동성과 속도감을 새로운 미(美)의 가치로 승화시켰다. 예를 들어 시(詩)를 표현하는 데도 미래주의자들은 기존의 수직, 수평적 글줄 나열을 타파하고 낱글자들을 분리하여 마치 그림을 그리듯 자동차나 기관총 소리, 기계의 소음, 폭력과 모험 등을 시각적(視覺的)으로 표현하였다. 이

들이 상상하는 미래는 과거의 문화와 완전히 결별할 수 있는 역동성의 추구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이탈리아 미래주의 음악가 루이지 루솔로(Luigi Russolo, 1885~1947)는 ‘소음의 예술(The Art of Noises)’로 유명하다. 그는 많은 소음(騒音) 악기를 만들어 그것에 의한 연주회를 개최했다. 이런 음악방법론은 뮌히크 콩크레트[*musique concrète* (프): 외계에 올려 퍼진 음을 녹음하고 그것을 소재로 해서 전자음향기기(電子音響機器)로 다시 가공·구성해 녹음테이프에 고정시킨 음악 장치로 계승되고 있다.

미래 도시로 새로운 공업 소재에 의한 거대한 기계와 같은 도시를 그려던 건축가도 있다. 이탈리아 건축가 안토니오 산텔리아(Antonio Sant'Elia, 1888~1916)는 그의 그림 〈새로운 도시(La Città Nuova, The New City)〉에서 승강기를 건물 안이 아니라 건물 밖에 뒤 공간 이동에 따른 역동성을 표현했다. 이런 설계는 오늘날 현대 건축 구조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으로 그는 현대 도시의 양상(樣相)을 미리 내다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빈티지, Vintage

빈티지는 획일화해 가는 현대사회에서 개성 있는 자아를 찾아 다룬 이들과는 차별된 이미지를 옛것으로 재구성해 사람들에게 익숙함에서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정서적 콘셉트다.

오래되어 가치 있는 것

오늘날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사람들과 삶의 가치의식은 점차 다양화, 고급화해 가는 시대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 기업들은 상품과 서비스 개발 방법으로 신소재 개발이나 새로운 디자인으로 차별화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시대를 역행하여 오히려 옛 것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전략을 쓰기도 한다. 이는 현대인들이 기계화하고 물질문명에서 벗어나 과거의 넉넉함과 향수를 찾고자 하는 것에서 착안한 콘셉트다.

‘빈티지(vintage)’란 원래 ‘와인의 원료가 되는 포도를 수확하고 와인을 만든 해’를 의미한다. 포도는 일정 수준의 당도와 각종 유기산을 충분히 함유하고 있어야 와인으로 만들 수 있는데, 해마다 일조 시간과 강수량 등 포도 농사의 기후 조건이 달라지므로 어떤 해에 생산된 포도로만 들어진 와인이나에 따라 그 맛과 가격이 달라진다고 한다. 그러므로 빈티지는 와인의 품질을 예측하고 마시기 적절한 한 시기 등을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된다는 것이다.

이런 ‘빈티지’란 용어는 현재 일상생활에서는 ‘어느 일정한 기간을 경과해도 광채를 잃지 않는, 광채를 잃어도 어떤 계기로 돌연 불사조와 같이 되살아나는 매력을 가진 어떤 특정의 두드러진 유행 또는 유행품’이라고 하면

될 것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래되어도 가치가 있는 것(oldies-but-goodies)’, 혹은 ‘오래되어도 새로운 것(new-old-fashioned)’을 의미한다. 더 넓게는 ‘성숙, 고전적인, 오래되거나 유행에서 벗어난, 최고의 뜻’을 담고 있다.

인간성 회복과 시각의 전환

빈티지는 1980년대 이후 부각되었다. 물질적 풍요와는 달리 정신적 황폐함을 느끼는 현대인의 소외감 등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오래 묵은 듯한 형태와 색상을 선호하고 과시적인 빈곤과 이유를 표현하는 라이프스타일의 적절한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아이템이 끊임없이 넘쳐나고 있다. 이런 무한대로 변화하는 시대에 아이러니 하게도 빈티지가 더욱 관심을 끄는 이유는 스토리를 지닌 역사적 유물과 같은 것이다. 즉, ‘빈티지를 소유한다는 것’은 그것에 담겨 있는 그 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소유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빈티지는 역사성을 지닌다는 것은 희귀성으로 더욱 가치를 발휘하여 자신만의 존재감을 드러내 주는 하나의 콘셉트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빈티지 패션은 틀에 박힌 옷에 거부감을 일으키는 젊은 이들을 중심으로 시작하였으며, 오래된 느낌이나 남루하고 초라한 느낌의 직물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낡은 티셔츠, 낡은 니트, 조각 이어 붙인 패치워크(patch work), 구제 청바지 등이 빈티지 패션의 특징이다. 빈티지는 오래되고 낡은 구제 물품과는 다르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제품으로 생산 당시의 탭까지 달고 있는 빈티지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빈티지 가구는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느낌이거나, 중후한 클래식 스타일의 앤티크(antique) 가구들을 재현한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핸드페인팅업과 수작업의 스테인 기법을 적용하기도 한다. 색상은 강하고 밝은 톤보다는 부드럽고 따뜻한 색을 연출한다. 마치 오래 사용한 듯한 의자나 선반, 탁자 등을 디스플레이한 카페가 있는데,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편안함을 주어 과거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함이다.

빈티지 광고는 인간이 가장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광고물 중 하나다. 빈티지 광고 표현은 두 가지 방향이다. 하나는 낡아 보이거나 어설피 보이는 옛 추억의 이미지가 고 다룬 하나는 오랜 전통과 고집으로 지켜 온 고전적 이미지를 상품과 연결시킨 것이다. 둘째, 표현기법은 숙련

된 장인이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자신의 기술을 오랜 기간 명맥을 이어왔다는 것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간판 한 맛의 비결' 이라고 하여 '장맛'을 전통방법과 오랜 숙성 과정을 강조한다. 투박하지만, 손맛을 강조하거나, 전통의 맛의 느낌을 실제 장인이 광고 속에 등장할 수 있다. 이런 다큐멘터리적 표현 기법을 소비자들에게 깨끗하고 세련된 느낌보다는 민고 살 수 있다는 신뢰감을 심어준다.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 축음기에서 나오는 매끄럽지 않은 배경음악을 사용한다. 이와 같이 사실적이지도, 맵지도 않은 시각과 청각 표현은 오히려 우리에게 친근감과 추억의 감성을 꼬집어낸다.

빈티지는 황폐나 빈곤 이미지로 조롱하는 스타일이기 보다는 미적 범주의 차원에서 소외된 주변적인 것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옛것에 대한 추억을 미의 영역으로 승화시키려는 발상의 전환이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빈티지의 희소성으로 소비자들의 욕구를 자극하는 '빈티지풍'이 남발되는 경향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소비문화를 조정하여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를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진품, 희소성, 개성 표현, 수작업, 소박함 등 긍정적인 가치를 부각시켜 인간성 회복을 모색하는 발전적인 방향을 보여 주는 것으로 빈

티지 콘셉트가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기란·최기호(2009). 『대중문화 사진』. 현실문화연구.
- 박세준(2009). 빈티지 패션의 사진적 표현: 에디토리얼 성격의 패션 캐탈로그의 제작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재정·박은경(2004). 『라이프 스타일과 트렌드』. 예경.
- 천정임(2009). 빈티지스타일의 양면성. 『디자인지식저널』, Vol. 11, 10~19.
- 최경화(2008). 빈티지(Vintage)패션 제품 디자인 연구: 로맨틱·내추럴 이미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패션전문자료편찬위원회(1997). 『패션전문자료사전』. 한국사전연구소.
- 斗山東亞百科事典研究所 編(2002). 『두산세계대백과사전』. 두산동아.

양성성, Androgyny

과거에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구분이 너무 엄격하여 남성의 특질을 보이는 여성이나 여성의 특질을 지닌 남성을 비정상적으로 간주하였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양분된 경계를 허물고 남녀 성향의 균형성이 사회적 콘셉트로 변화하고 있다.

인간에 대한 광의의 콘셉트

문화는 한쪽으로만 질주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진다. 즉, 어느 한쪽이 성장하면 다른 한쪽도 함께 그만큼 성장하는 것이다. 여성과 남성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수렵 시대와 농경 시대에 여성은 힘을 필요로 하는 영역에서 남성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오늘날 디지털 시대에는 어디에서도 남성의 보살핌을 요구하는 곳은 없다. 우리 문화의 발달은 양성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양성성이란 남성과 여성의 특성을 적절하게 배합해 가는 문화적 현상이자, 인간을 이해하는 광의의 콘셉트라 할 수 있다.

양성성(兩性性, Androgyny)은 남자를 뜻하는 ‘안드로(Andro)’와 여성을 뜻하는 ‘지노(Gino, gyn)’의 그리스 합성어다. 한마디로 ‘지용동체’, ‘양성 공유’를 말한다. 여성과 남성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부정하지 않고 여성적인 것과 남성적인 것을 골고루 갖춘 인성을 말한다.

양성성의 대두 요인은 1980년대 중반을 전후한 여성 해방 운동과 성 역할의 변화, 포스트모더니즘 등이다. 이런 사회적 변화로 성 역할의 차이가 사라지고 개성적이고 자유로운 인간 이미지의 중성적 이미지가 양성성의 콘셉트다.

변화되는 성 역할

1960년대 말부터 점진적으로 시작된 성별 파괴는 1970년대 록(rock) 문화를 거쳐 1980년대 런던의 클럽들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확산되었다.

패션에서는 중성적인 옷차림과 헤어스타일 등이 매우 매력적인 트렌드가 되어 가고 있으며, 여성들의 전유물이라고 여겨왔던 액세서리, 화장, 장식 등도 남성들의 취향이 되어 간다. 2013 F/W 컬렉션에서 영국 디자이너 J.W. 앤더슨은 여성복 같은면서도 남성복인 패션을 선보였는데, 2001년 이후 남성복은 꾸준히 몸에 딱 달라붙거나 허리를 강조하는 실루엣을 보이고 있다. 이런 패션에 민감하고 외모에 관심이 많은 도시 남성들을 메트로섹슈얼(metrosexual)이라 한다. 이들은 외모 가꾸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해 피부 관리와 헤어스타일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며 쇼핑을 즐긴다. 20~30대 초반 도시 남성들에게 이러한 경향이 많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영국의 축구선수 데이비드 베컴(David Beckham, 1975~)은 체격이 긴 장하고 쇼핑을 즐기며, 헤어스타일과 피부를 관리하는 메트로섹슈얼의 전형이다.

요즘은 여자보다 예쁘거나 여성보다 더 고운 피부를 가진 남자 연예인들이 대세다. 송중기, 장근석, 이홍기 등과

같은 고운 피부, 투명한 피부, 하얀 피부를 가진 남자 연예인들이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처럼 화장과 뷰티에 특별한 관심을 갖는 남성들을 그루밍(Grooming)족이라 한다. 조사에 따르면, 남자 대학생들에게 남성의 화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무려 84%가 '상황에 따라 화장할 수도 있다'라고 응답했고 '화장 자체가 이상하다'고 답한 남자 대학생은 12%에 불과해 미용에도 상당한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여성화장품의 매출액은 감소한 반면, 남성화장품의 매출액은 증가했다고 한다. 업체에 따르면, 2~3년 전 BB크림이 여성들을 사로잡았던 것과 비교하면 남성 전용 CC크림은 출시 한 달 동안 20만 개가 팔렸고, 누적 매출액만 50억 원에 달한다. 이제 화장품 메이크업은 여성만의 필수품이 아니다.

드라마 속 남성 캐릭터도 이제 능력 있고 강한 남성상보다는 나약해서 모성 본능을 일으키는 부류가 인기가 있다. 2013년 TV 드라마 중 KBS2 <작장의 신>의 오지호, SBS <내 연애의 모든 것>의 신하균, MBC <금나와라 푼떡>의 연정훈 등이 그 캐릭터 예다. 현실에서는 약하고 무능하고 성격과 외모가 뒤떨어지지만, 드라마 속 남자는 꽃미남에 빠질하지만, 사랑스러움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드라마를 소비하는 여성들의 취향(趣向)과 일치한

다고 볼 수 있다. 과거 남성은 책임감이 강하고 여성은 의존적이었다면, 현대 남성은 부드러워지고, 여성도 남성을 보호해 줄 수 있다는 양성성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남성에게도 내면의 여성성인 아니마(anima)가 있듯이, 여성에게도 내면의 남성성인 아니무스(animus)가 존재한다. 눈물 흘릴 줄 아는 남성, 감성이 촉촉한 남성 이미지가 유행하고, 의리가 있는 정의파 여성, 자기주장이 강한 당찬 여성이 각광 받으면서 어느 정도 성적 특성에 고정관념의 벽을 허물고 있는 듯하다. 즉, 남성에게 내재된 '적당한 여성성'은 오히려 남성을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고, 여성도 어느 정도 패기 있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수용한다. 남녀 역할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속에서 남성성과 여성성의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는 사회적 분위기와 대중매체 등이 주도하고 있는 양성성은 남녀 모두가 즐겁고 행복하고자 하는 바람일 것이다.

참고문헌

- 김용섭(2013). 『라이프트렌드 2014: 그녀의 작은 사치』. 부키.
 김호다·김종택(2009). 디지털 게임에서 남녀의 양성성(兩性性)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Vol. 10 No. 6, 117~125.
 오나래(2010. 05. 20) '여자보다 여자를 더 잘 아는 남자'들이 뜬다?.
 《한경닷컴 bnt뉴스》.

이현영(2011). 사이버공간에서 청소년의 젠더의식: 팬식의 내용분석.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표정옥(2013). 『양성성의 문화와 신화』. 지식과 교양.

한지아(2013. 06. 13). 남성 화장품 'CC크림' 열풍... "티 안나게

멋있어진다". 《한국경제》.

pmg 지식엔진연구소(2012). 『시상식사전』. 박문각.

男 대학생 주된 관심사는 미용·패션·연애... "결반 이상 성경험 있다".

(2012. 07. 03). 《경인일보》, 디지털뉴스부.

斗山東亞百科事典研究所 編(2002). 『두산세계대백과사전』.

두산동아.

어느 시대나 인간의 시선은 무엇인가에 욕망을 느끼고 감응(感應)하기를 바라는데, 그중 하나는 인간의 성적 본능을 자극하는 에로티시즘이다.

에로스애 사로잡힘

2013년 기억에 남는 이슈 중 하나는 클라라의 시구 패션 이지 않았나 싶다. 그녀가 입은 레깅스는 어느 비키니보다 더욱 섹시하고 야해 보였다. 섹시함의 포인트는 옷을 다 벗은 알몸이 아니라 아슬아슬 드러나 있는 노출에 있다. 인간이 이런 육체적 감각에 사로잡혀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은 에로스란 신이 쓴 화살에 맞아서일까?

에로티시즘(eroticism)은 육체적인 애욕에 얽매이는 지나친 기호, 혹은 작품의 관능적인 정욕을 유발하는 성질을 의미한다. 그 어원은 그리스어 에로스(eros)에서 유래되었다. 에로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연애, 사랑의 신이다. 에로티시즘은 고대와 미개 민족에서 널리 볼 수 있는 다산과 풍요의 심벌인 성의 나체와 생식기 표현과는 다르며, 성행위의 직접 표현을 목적으로 하는 포르노그래피(pornography)와도 구별된다.

역사적으로 에로티시즘은 신화·종교·관습에 근원을 두고 있으며 주로 문학과 미술로 표현된다. 신화에서 성적 욕망의 표현은 일찍부터 그리스 도자기의 그림에 나타났으며 이것에 더하여 점점 세련되고 요염하게 전개된다. 폼페이 벽화에서는 고대인의 성생활이 조형적이며 자유롭다는 것을 볼 수 있고, 헬레니즘 미술에서는 풍만한 육

체와 부끄러움을 머금은 자태를 엿볼 수 있다.

중세 유럽 그리스도교 시대에는 정신적 가치가 더욱 중요시되면서 에로티시즘은 잠시 쇠퇴한 듯했으나 르네상스 시대에는 인간의 본성을 한층 더 강조한 예술이 발전하였다. 화가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Michelangelo Buonarroti, 1475~1564)와 라파엘로 산치오(Raffaello Sanzio, 1483~1520) 등은 건강한 육체를 조형적 에로티시즘으로 표현했다.

18세기 프랑스 궁정 문화는 성을 종교적 속박에서 해방시켜 자유롭게 표현하려 하였는데 이것은 사회적으로 부르주아(bourgeoise) 혁명으로 이어지고 문학적으로는 19세기 낭만주의 대두로 이어졌다. 오늘날 에로티시즘은 고전적 표현 예술인 문학·미술뿐 아니라 미디어의 발달에 따라 사진·광고·패션·영화·컴퓨터그래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중화했다.

성적 상품 판매의 도구

사진 예술은 피사체에 성적 이미지를 강조했다. 특히 영화는 에로티시즘 영화라고 부를 만한 많은 작품들을 쏟아냈다. 대표적 에로티시즘 영화인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Bernardo Bertolucci) 연출의 《파리에서의 마지막 뎅고

에로티시즘에 관한 연구. 『조형미디어학』, Vol. 12 No. 4, 143~151.

이진혁·김종덕(2010). 국내 소주광고의 에로티시즘 분석.

『디지털인학연구』, Vol. 23 No. 4, 325~337.

프란시스코 알베로니 저, 김순민 역(1992). 『에로티시즘』. 강천.

한국사전연구사 편집부(1998). 『미술대사전(용어편)』.

한국사전연구사.

斗山東亞百科事典研究所 編(2002). 『두산세계대백과사전』.

두산동아.

세련미, 품격, 여성성을 중심으로 조화미를
이루며 상류 계층의 은근하고 섬세한 매력을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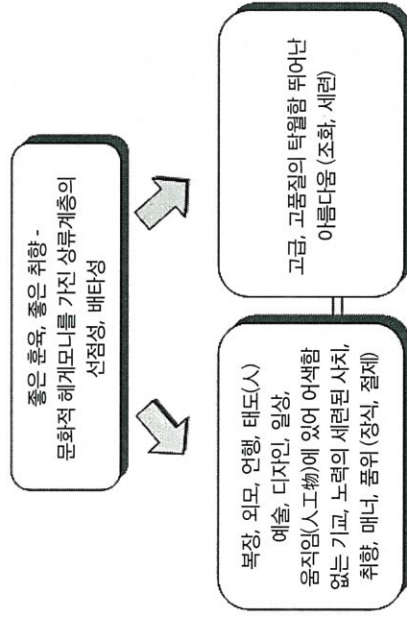
품격 높은 세련미

‘엘레강스’와 ‘럭셔리’라는 단어는 의상이나 보석을 표현할 때 사용하지만, 사람을 지칭해서도 ‘엘레강스하다’고 한다. 이런 면에서 엘레강스란 의미는 단지 겉으로 보이는 형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듯하다. 말이나 행동, 에티켓(태도)에서 오는 분위기도 포함된다.

엘레강스(elegance)의 사전적 정의는 ‘우아(優雅)함, 고상(高尚)함’으로, 주로 인간의 외면적인 양태(樣態)를 의미한다. 또한 고상한 말이나 예절 바름과 좋은 훈육과 취향을 갖춘 귀족성도 내포한다.

미적 범주로는 기교의 훈련에 의해 연출된 자연스럽고 품위 있는 세련미, 성적인 매력 등의 조화로 설명할 수 있다. 고현진(2003)에 의하면, 엘레강스의 미적 가치는 “... 사치성, 품위, 여성성, 세련미, 조화성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사치성이란 고가성을 전제로 하며, 희귀하고 풍요로우며, 탁월한 품질의 장인 정신을 말한다. 결국 엘레강스의 미적 가치는 상류 계층의 구미에 맞게 정제되는 세련성과 조화성의 중용 미학이라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는 사회적으로 우월한 사람들을 따르고자 하는 욕망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과장된 위엄에 근거하기보다는 은근하고 섬세한 매력을 의미한다.

<그림 7> 엘레강스의 일반적 정의



출처: 고현진(2003),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상류 계층의 기품

엘레강스(Elegance)는 패션에서 가장 대표적인 콘셉트다. 세련된, 기품 있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한데 아우른 이미지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인상을 준다. 특히 여성의 의상에는 더욱 감각적이며, 기품 있는 느낌을 준다. 주로 보라색과 자주색을 사용하여 유사 색상 배색을 하면 전형적으로 우아한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다. 가는 허리, 부드러운 어깨를 표현하여 여성의 우아함을 강조한다. 또한 포털이나 페이스북 등 과잉 장식을 피하고 소재의 특성을



SIMPLY ELEGANT
EVENT AND WEDDING PLANNING

출처: www.voodoochilli.net

참고문헌

- 고현진(2003). 복식에 표현된 엘레강스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연아 갈라쇼, 네티즌들 “자그레브에 연보랏빛 천사가 내려왔다”. (2013. 12. 08). 《조선일보》.
- 유선영(2011). 엘레강스 이미지의 미적특성을 응용한 패션 스타일링 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재정 · 박은경(2004). 『라이프 스타일과 트렌드』. 예경.
- 한국문화평론가협회(2006). 『문학비평용어사전』. 국학자료원.
- 斗山東亞百科事典研究所 編(2002). 『두산세계대백과사전』. 두산동아.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의 변화 속도는 해가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다. 엽기는 획일화한 주류 문화에서 이탈해 보려는 도전 의식에서 시작되었다.

일탈의 시작

산업화 시대로 일컬어지던 20세기를 마감하고, 일명 '뉴 밀레니엄'으로 부르는 2000년대의 첫발을 내딛는 시점에서 전혀 예기치 않은 낯선 용어 하나가 등장했다. 이 용어는 바로 '엽기(獵奇)'다. 엽기는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순식간에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더니, 2년도 지나지 않아 온 한국 사회에 당당하게 자리 잡고, 사람들의 시작과 청각을 사로잡았다.

'엽기'란 사전적으로 '기괴한 것이나 이상한 일에 강한 흥미를 가지고 찾아다님'을 뜻한다. 하지만 현재는 사전 본래의 뜻을 뛰어넘어 '기발한 것', '발상의 전환', '괴상하면서 재미있는 것' 등을 총체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엽기를 영어로는 'bizarre', 'grotesqueries'로 표현하는데, 먼저 그로테스코(grotesco)는 사람·꽃·동물·과일 등을 포함하는 아라베스크 무늬를 말한다. 원래 그로테스코는 이탈리아어로 보통의 그림에는 어울리지 않는 장소를 장식하기 위한 색다른 의장(意匠)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괴기한 것, 극도로 부자연한 것, 흉측하고 우스꽝스러운 것' 등을 형용하는 말로 사용된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엽기'는 '기이하고, 특이한'이란 의미를 가진 비자르(bizarre)의 의미에 가깝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엽기 유행은 2000년대부터 인터넷 사이트에서 유행하던 기괴한 사진들에서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 사진들을 시작으로 인터넷에서 엽기 동영상 인기를 끌었다.

이후 국내에서 엽기 열풍이 계속되면서 기괴한 것을 넘어 '친근하고 유머러스한 것으로 금기에 도전하는 것' 등이 엽기적인 것으로 수용되었으며, 많은 명사와 결합해 응용되었다. '엽기녀', '엽기 유머', '엽기 소설', '엽기 문화', '엽기 사진', '엽기 광고', '엽기 영화', '엽기 캐릭터' 등이 있다.

기본 가치를 전복하라

2001년 가장 인기를 끌었던 '엽기'는 '엽기 토끼' 캐릭터다. 길거리 좌판을 점령하다시피 했던 이 캐릭터는 화장실 변기를 뚫는 펌프를 머리에 달고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진 토끼 인형이다. 달에서 방아를 찧는 귀여운 모습의 토끼라는 고정관념을 뒤집은 기발한 착상으로 엽기 토끼는 한동안 인기를 끌었다.

또한 인터넷 소설 〈엽기적인 그녀〉가 영화화하면서 엽기라는 용어는 더욱 유행하게 되었다. 다방면에 능력을 갖춘 만능 소녀지만 지나치게 활발하고 이기적이기까지 한 주인공의 이미지를 통해 엽기는 밝은 이미지로 바뀌었다.

광고 또한 브랜드의 속성, 서비스 등이 점점 비슷해지

13

예술, Art

문자가 아닌 형태를 빌려와 메시지를 전달하는
부드러운 표현 방법이 예술이다.

미적 기술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고백할 때 말이나 글로 '사랑한다'고 전달하기가 매우 쑥스러워 좀처럼 실행하지 못할 때가 있다. 하지만 선물이나 노래 등 사랑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형태로 전달하면 훨씬 부드럽고 간접적지만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다. 예술이 이런 형태와 비슷하다고 하겠다. '예술의 어원은 그리스어 테크네(technē)다. 일정한 과정을 해결해 낼 수 있는 숙련된 능력 또는 활동으로서 '기술을 의미하였던 말이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B.C 384~322)는 효용성 측면에서 기술을 둘로 나누고, 하나는 생활상·필요에 의한 기술, 다른 하나는 '기본 전환과 쾌락을 위한 기술'이라고 했다. 전자는 실용적인 여러 기술들을, 후자는 이른바 예술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로서 예술의 의미가 예술 활동의 특수성 때문에 미적 의미로 한정되어 기술 일반과 예술을 구별해 '미적 기술(fine art)'이라는 뜻을 지니게 된 것은 18세기에 이르러서다.

그러나 오늘날 예술, 아트(art)라는 단어는 미적(美的) 의미에서 '수공(手工)' 또는 '효용적 기술'의 의미까지 모두 포함하는 콘셉트다.

상품 속 예술 작품

누군가 어떤 사물을 보고 '예술적이다'라고 말했다면, 그 사물은 예술 작품이 아닌 것을 지칭하여 이르는 말이다. 또한 그것은 '일반성'을 넘어선 고상함과 상식 이상의 고차원을 의미할 것이다.

상품 분야에서 직접 손으로 그린 것 같거나, 조각한 듯한 표현 등이 그러한 예다. 공장에서 대량생산한 제품이 라기보다는 하나의 유일 작품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예술적인 생산품은 우아함과 고차원적 단일함 등이 매력이다.

루이뷔통(louisvuitton.com)이 2013년 선보인 패션과 가방 디자인은 이전에 로고의 패턴으로 채웠던 것에서 과감히 로고를 생략하고 반복적인 도트(dot) 패턴으로 팝아트(Pop Art)적 작품 스타일이었다. 팝아트는 1950년대 중후반 미국에서 추상표현주의의 주관적 엄숙성에 반대하고 매스미디어와 광고 등 대중문화적 시각 이미지를 미술 영역에 적극 수용하고자 했던 구상 미술의 한 경향을 말한다. 미국 팝아트의 대표 작가는 앤디 워홀(Andy Warhol, 1928~1987), 로이 리튼스타인(Roy Lichtenstein, 1923~1997), 톰 웨셀만(Tom Wesselmann, 1931~2004)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중 가장 많은 관심을 갖게 했던 작가는

웰빙, Well-being

웰빙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현대인들의 열망이다.

현대인의 참살이

현대 산업사회에서 사람들은 시간을 대부분 부(富)를 축적하는 데 소비하며 살아왔다. 그러다 보니 물질적 부와 정신 건강의 불균형을 가져와 인간 소외와 우울증, 심한 경우 정신적 공황을 겪기까지 한다. 웰빙은 이러한 현대 산업사회의 병폐를 인식하고, 육체적·정신적 건강의 조화를 통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웰빙(well-being)은 순우리말로 '참살이'라고 한다. 사전적 의미로는 정신적, 육체적인 건강과 행복, 복지와 안녕을 의미하고, 사회적 의미는 물질적 부가 아니라 진정한 삶의 질을 강조하는 생활 방식을 가리킨다.

1980년대는 경제적 풍요와 사회적 성공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물질적 풍요에 비해 정신적 만족도를 찾기 못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1990년대에 들어 정신적 풍요와 행복, 자기만족이 삶의 중요한 척도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의식과 구체적인 행동 방식을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말이 바로 웰빙이다.

원래 웰빙은 미국 중산층이 첨단 문명에 대항해 자연주의, 뉴에이지 문화 등을 받아들이면서 대안으로 선택한 삶의 방식이다. 한국에서도 2003년 이후 건강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고 건강과 관련한 소비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웰빙 문화가 확산되어 건강·의료·여행 등 각종 상품이 등장했다.

심신의 만족과 균형 이론 행복

웰빙을 추구하는 사람들, 일명 '웰빙족'은 육체적으로 질병이 없는 건강한 상태뿐 아니라 직장이나 공동체에서 느끼는 소속감이나 성취감의 정도, 여가 생활이나 가족 유대, 심리적 안정 등 다양한 요소들을 웰빙의 척도로 삼는다. 몸과 마음, 일과 휴식, 가정과 사회, 자신과 공동체 등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상태가 웰빙이다.

웰빙족은 고기 대신 생선과 유기농산물을 즐기고, 단전 호흡·요가·암벽 등반 등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운동을 하며, 외식보다는 가정에서 만든 슬로푸드를 즐겨 먹고, 여행·등산·독서 등 취미 생활을 즐기는 것이 특징이다.

웰빙 먹거리는 '건강'과 '친환경'에 초점을 맞추어 나타낸다. 유기농 야채와 곡물로 신선한 건강식을 추구하고 육류보다 생선을 즐기고 화학조미료와 탄산음료, 술, 담배 등은 지양한다. 대신 몸에 좋은 허브티나 좋은 와인을 마신다.

의 정신적 만족을 구가하며 행복을 찾고자 하는 현대인의 소망이다.

참고문헌

- 김기란 · 최기호(2009). 『대중문화 사전』. 현실문화연구.
김주희 · 박옥련(1999). 내추럴리즘(Naturalism)적 표현에 의한 패션 디스플레이 연구. 경성대학교 논문집, Vol. 20 No. 1, 305~320.
남경태(2006). 『개념어사전』. 들녘.
박광희(2011). 웰빙 라이프스타일, 웰빙태도, 삶의 만족도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제49권 7호 통권 273호, 39~49.
오만호 · 박현정 · 이상환 · 박수용(2010). 웰빙 라이프스타일이 자연주의 화장품의 지각된 가치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피부미용학회지』, Vol. 8 No. 3, 175~190.
오수연(2004). 『색의 유희』(살림지식총서 132). (주)살림출판사.
이재정 · 박은경(2004). 『라이프 스타일과 트렌드』. 예경.
이태형(2009. 12. 23). BIF보루네오 '내추럴리즘+휴머니즘' 공간 연출. 《헤럴드생생뉴스》.
斗山東亞百科事典研究所 編(2002). 『두산세계대백과사전』. 두산동아.

유머는 사람들의 흥미를 자극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발하는 창의력을 기반으로 한다. 때로는 진지함보다는 지각 있는 익살과 은유가 더욱 효과적이다.

정신적 해방감

눈길을 끌고 호기심을 돋우며 유머러스한 접근 방법은 오늘날 사회 여러 분야에서 매우 인기가 있다. 고객을 웃게 하거나 어는 한순간 그들의 시간을 끌 수 있다면, 그들이 여러분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기억할 확률은 높아질 것이다.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 1856~1939)는 “유머는 유아기의 놀이적 마음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어른들의 해방감”이라 정의했다.

유머(humor)의 사전적 의미는 익살스러운 농담을 의미한다. 익살·해학·기분·기질로 번역되며 프랑스어로는 위무르(humour), 독일어로는 후모르(humor)라고 한다. ‘유머’라는 단어의 기원은 기원전 5세기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히포크라테스(Hippocrates, BC 460~370)의 시대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체질과 기질은 4체액(體液, humor)의 배합으로 정해지지는 것으로 믿었다. 그 4체액은 다혈질(sanguine humor), 담즙질(choleric humor), 우울질(melancholic humor), 점액질(phlegmatic humor)이었다. 당시에는 이 체액의 배합 정도가 사람의 체질이나 성질을 결정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기질·기분·변덕스러움 등을 뜻했다. 다시 말해, 인간의 행동·언어·문장 등을 읽고 듣고 보면서 갖는 웃음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그

러한 웃음을 인식하거나 표현하는 능력까지를 이르는 단어가 ‘유머’다.

창의적 감성 커뮤니케이션

유머의 대표적인 예는 유머 광고다. 이명천·김요한(2012)에 의하면, 정밀하게 계산되고 구성된 유머는 소비자의 경계심을 풀고 광고주에게 친밀감을 느끼게 하는 데 큰 효과를 올릴 수 있다고 한다. 여러 연구에서도 광고에서 유머의 사용이 주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유머는 다른 광고 소재들보다 주의 집중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따라서 현대와 같이 복잡한 광고환경에서 유머 콘셉트의 사용은 사람들의 주의를 끄는 데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위의 영상은 에어뉴질랜드(airnewzealand.com)의 기내 안전 방송이다. 이 회사에서는 영화 〈더 호빗(The Hobbit)〉을 패러디한 색다른 방송을 선보였다. 총 4분 길이로 제작된 영상은 기내 안전벨트 착용부터 사고 대비 방법, 행동 에티켓 등을 담고 있다. 연기자들은 호빗 분장을 한 채 매우 진지하게 기내의 안전 수칙을 설명하고 있으며, 다소 우스꽝스러운 표정과 행동으로 시선을 집중시키는 한편 웃음을 유발한다. 안전 수칙 외에도 항공기가 가

프로이트 지, 황보석 역(1997). 유머. 『억압, 중후 그리고 불안』.

열린책들.

Duncan, C. P., Nelson, J. E., & Frontczak, N. T. (1984). The Effects of Humor on Advertising Comprehension.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11, 432~436.

Madden, T. J. & Weinberger, M. G. (1982). The Effects of Humor on Attention in Magazine Advertising. *Journal of Advertising*, 11(3), 8~14.

斗山東亞百科學事典研究所 編(2002). 『두산세계대백과사전』.
두산동아.

16

키덜트, Kidult

키덜트는 현대 성인들이 추구하는 재미(Fun), 유치함(childish), 판타지 등의 가치가 대중문화의 하나로 나타난 콘셉트다.

성인들의 가벼운 일탈

18세기 영국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William Blake, 1757~1827)는 이 세상은 타락했다고 규정하면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낙원 같은 세계로 '순진무구함(innocence)'을 주장했다. 여기서 순진무구함은 어린아이와 동의어였다고 한다. 이처럼 우리는 '아이'하면 떠오르는 생각은 순수함, 천진스름 등으로 어른의 반의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최근엔 '어른아이'란 말이 있다. 이 단어는 사회적으로 독립심이 부족하고 결단력이 없는 나약한 어른을 뜻하기도 하지만, 한편 재미있게 스스로가 즐기려는 성인들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런 '어른아이'들을 '키덜트(kidult)'라 한다.

키덜트는 현대 성인들의 각박한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감성적이고 즐거운 삶을 영위하고자하는 심리 상태를 기반으로 한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옛 어린 시절의 환상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사회현상이다.

《동아일보》 2005년 9월 10일 지는 “키덜트(kid+adult) 문화가 순수·대중 문화 시장에서 급부상하고 있다”며 “사실 예전엔 키덜트 문화라고 하면 '정신적 퇴행'이라는 부정적 뉘앙스가 강해 소수의, 미성숙한, 비주류 문화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이제 당당히 순수와 대중예술 전반에

걸쳐 주류 문화의 일원으로 자리 잡는 추세다”라고 했다. 최근 백화점, 완구점, 영화관, 인터넷 쇼핑몰 등에는 키덜트를 겨냥해 특별히 제작한 캐릭터 의류, 액세서리, 장난감, 만화영화 등이 다양하게 등장해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성인들의 다양한 문화 창출

키덜트(kidult)의 특징은 무엇보다 진지하고 무거운 것 대신 유치할 정도로 친진난만하고 재미있는 것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키덜트가 집착하는 제품은 뱅크, 장갑차, 항공모함, 전투기 등 실물을 축소한 프라모델·플라스틱 모델(plastic model)을 일컫는 완구의 일종. ‘조립식 키트’라 부르는 플라스틱제의 부품과 조립을 위한 설명서, 혹은 완제품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과 애니메이션 캐릭터, 인형 등 종류도 다양하다. 키덜트가 어린이들과 다른 점은 색도 입히고 부품도 직접 만들어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1990년대 배경의 드라마 방영으로 복고 열풍이 거세지면서 ‘키덜트족’ 상품들의 판매도 탄력을 받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2013년 11월 24일 자에는 2013년 11월 초부터 복고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등장하는 파자 등 추

미래와경영연구소(2006). 『NEW 경제용어사전』. 미래와경영.
안병옥(2009). 『로봇을 향한 열정, 일본 애니메이션-아름에서
에반게리온까지』. (주)살림출판사.

조지민(2013. 11. 24). '응답하라 키덜트(Kid+Adult)족' 추억을 판다.

《파이낸셜뉴스》.

주지혁(2013). 키덜트(Kidult) 제품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탐색. 『社會科學研究』. Vol. 29 No. 2, 179~197.

필립 아리에스 저, 문지영 역(2003). 『아동의 탄생』. 새물결.

pmg 지식엔진연구소(2012).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斗山東亞百科事典研究所 編(2002). 『두산세계대백과사전』.

두산동아.

조악한 그림과 취향

고속버스나 기차를 타고 지방 도시를 가다 보면 러시아의 크렘린궁전이나 프랑스의 베르사유궁전을 흉내 낸 호텔이나 음식점들을 볼 수 있다. 이 건물을 보면, 웃음이 절로 나오면서 ‘키치’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김용희에 의하면, “키치는 이발소 벽면에 걸려 있는, 유명한 작품의 모작이기도 하고 싸구려 사진이기도 하다”라고 정의한다.

키치의 원어명은 독일어 'Kitsch'의 형용사로 가짜 또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사이비 등을 뜻하는 미술 용어다. 고미술품을 모방한 가짜 복제품이나 유사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Michelangelo Buonarroti, 1475~1564)의 〈모세(moses)〉와 같은 걸작품을 석고나 플라스틱으로 복사한 ‘가정용품’이나, 잡지 표지를 장식하는 일러스트레이션에 이르기까지 조악(粗惡)한 감각으로 만들어진 미술품과 저속(低俗)한 대중적 취향(趣向)의 대중문화들을 지칭한다.

이 용어가 사용된 사회적 배경은 낭만주의 예술에서 19세기 중반 부르주아 사회의 형성과 예술의 상업화 과정에 서 기원한다. 19세기 말, 유럽 전역에는 이미 급속한 산업화의 분위기가 확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중문화의 파급 속도도 빨라졌다. 이에 중산층들도 예술품에 관심을 가지

게 되면서 미술품이나 그림을 사들이려는 욕구가 강해졌는데, 키치는 바로 이러한 중산층의 문화 욕구를 만족시키는 ‘그럴듯한 그림’을 비꼬는 의미로 사용하던 단어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들어 미적 논의의 대상으로 문화적 의미를 가지게 되었고, 처음 미술 용어로 사용되었으나, 그 사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그래서 현대에 이르면서 고급문화나 고급 예술과는 별개로 대중 속에 뿌리내린 하나의 예술 장르로까지 개념이 확대되어, 현대 대중문화의 흐름을 형성하는 콘셉트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1960년대 앤디 워홀(Andy Warhol, 1928~1987)이나 로이 리컨스틴(Roy Lichtenstein, 1923~1997) 같은 팝아트 미술가들이 통조림이나 만화를 이용한 작품을 선보이면서 키치는 조잡, 투박한 효과를 의도적으로 추구하는 하나의 경향이 되었다.

저급함이 창의력의 통로

진지함과 거리가 있고, 가볍고 저속한 키치의 특성은 일상 생활 도처에서 볼 수 있게 되었다.

키치 패션에서는 ‘고상하고 품위 있는 것에 대한 거부’, ‘격식에 대한 거부’ 등으로 나타난다. 의복에서는 단순함과 절제를 거부하며, 장신구를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색채

이동연(2003) 키치. 김성곤 외. 『21세기 문화 키워드 100』.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365~368.

이재정·박은경(2004). 『라이프 스타일과 트렌드』. 예경.

장 보드리야르 저, 이상률 역(1991). 『소비의 사회: 그 신화와 구조』.

문예출판사.

페터 슬로터다이크 저, 이준우·박미애 역(2004). 『인간농장을 위한

규칙』. 한길사.

M. 칼리니스쿠 저, 이영옥 외 역(1993). 『모더니티의 다섯 얼굴』.

시각과 언어.

斗山東亞百科事典研究所 編(2002). 『두산세계대백과사전』.

두산동아.

패러디는 대상이 되는 작품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먼저다. 패러디를 한 작품은 패러디 대상이 된 작품과는 또 다른 새로운 의미를 지닌다.

의도적 모방

요즘 텔레비전 시사 교양 프로그램은 유행어 일색이다. 유행어는 주로 프로그램에서 진행자나 사회자에 의해 생산된다. 예를 들어 이영돈 PD의 〈먹거리, X파일〉에서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라는 유행어가 있다. 이를 신동엽이 〈SNL 코리아〉에 가져와 오락적으로 사용하여 시청자들에게 코믹하게 받아들여졌다. 우리는 이 유행어의 의미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알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다. 아주 똑같이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원본을 가져와 변형된 유형에 빗대어 사용하기 때문이다.

패러디(parody)란 기존 원본에서 따와서 재생산해 사용하는 콘셉트다. ‘잘 알려진’ 원작을 비틀어 풍자적으로 새로운 메시지를 만들어 내는 문학의 한 표현형식이다. 이는 ‘대응 노래(counter-song)’, ‘파생적인 노래’라는 뜻의 고대 희랍어 ‘parodia’에 그 어원을 두고 있다. 접두어 ‘para’에는 ‘대응하는(counter)’, ‘반(反)하는(against)’, ‘이외에(besides)’의 뜻이 있다.

패러디는 단순한 모방 차원이 아니고, 패러디의 대상이 된 작품과 패러디를 한 작품이 모두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표절(剽竊)과 구분된다. 오늘날 영화, 연

극, 드라마 등의 내용이나 이야기의 전반적 흐름, 등장인물의 말투 등을 모방해 표현하거나, 전 시대나 현재 시대의 권력적 허위의식이나 현실의 억압 요소 등을 조롱하거나 비판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기도 하다.

원본 분석이 먼저

패러디를 제대로 하려면, 작가와 독자 모두가 알고 있어야 한다. 작가가 대상 작품의 주제와 기법, 배경 등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패러디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널리 알려진 작품이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KBS ITV 〈개그콘서트〉의 ‘시청률의 제왕’은 출생의 비밀을 기본으로 하며 얽힌 가족 관계와 욕설 등이 난무하는 드라마를 풍자하고 눈에 띄는 간접광고물 노출도 부각시켰다. 이는 요즘 시청률만을 목적으로 하며 막장으로 달리는 드라마들을 풍자한 것이다. 또한 ‘뽀엿터테 인턴트’에서는 개그우먼 김지민이 드라마의 장면 하나하나에 꼬투리를 잡는 까다로운 배우로 나오고, 개그우먼 신보라는 스테프를 3명씩 데리고 다니며 마치 양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가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허세로 가득찬 일부 연예인들을 풍자하는 것이다.

패러디는 사회문화적 상황과 연결하여 표현할 때 제대

19

퓨전, Fusion

퓨전은 이질적인 것들의 뒤섞임, 조합, 조화를
뜻하는 것으로 다양한 문화의 경계를 파괴한
스타일의 혼합이다.

이질적인 것들의 조화

21세기는 수직적 위계질서가 무너지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복합적 사회구조다. 기존의 장르를 파괴하고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 내기도 하고, 하나의 장르에 한정하기보다는 다양한 장르가 혼합되기도 한다. 이는 포스트모던 시대의 해체주의(解體主義, deconstruction)를 특징으로 한 ‘탈중심화’ 현상이다.

이런 해체주의 현상은 새로운 용어들을 산출해 냈는데, 그중 퓨전, 하이브리드, 킨버전스, 킨레버레이션 등이 있다. 각각 그 의미는 조금씩 다르지만, 둘 이상이 연합하여 새롭고 유익한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것이 공통이다.

‘퓨전(fusion)’은 라틴어의 ‘fuse(섞다)’에서 유래한 말로,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것을 섞어 새롭게 만든 것을 뜻한다. ‘하이브리드(hybrid)’는 이질적인 요소가 서로 섞인 것으로 이종(異種), 혼합, 혼성, 혼혈이라는 뜻한다. ‘킨레버레이션(collaboration)’은 공동 작업·협력·협작이라는 뜻이며, ‘킨버전스(convergence)’는 여러 기술이나 성능이 하나로 융합되거나 합쳐지는 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정의들로 미루어 본다면, 최근 세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퓨전’과 같은 용어들은 ‘이질적인 것들의 뒤섞임, 조

합, 조화’란 뜻으로 볼 수 있다. 이상수(2002)에 의하면, “퓨전 문화는 일상의 고정관념이나 틀을 과감히 제거하고 새로운 어울림의 문화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퓨전은 개성과 다양성이 존중되고 창조가 이루어지는 미래 지향적인 콘셉트로 요리·패션·영화·인테리어 등 우리 일상생활 전반에서 일반화할 것으로 보인다.

잡종의 역사가 창조를 만든다

다양성과 다원성이라는 기초 위에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포용, 통합하는 퓨전 식 접근 방식은 정치·사회적 통합 코드로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음악 장르에서 크로스오버(crossover)가 퓨전 뮤직에 해당된다. 여러 장르가 교차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는 특히 재즈와 록, 팝 등 여러 가지 스타일의 음악을 혼합한 연주 형식을 말한다. 크로스오버 음악의 시작은 1969년 재즈음악가인 트럼펫 연주자 마일스 데이비스(Miles Davis, 1926~1991)가 재즈와 록을 결합하여 시도한 ‘재즈록’ 또는 ‘록재즈’라고 일컫는 퓨전 재즈다. 1980년대 초 컨트리음악과 팝 음악을 결합한 양식이 큰 인기를 끌면서 크로스오버 음악의 대표 격으로 각광 받았다. 크로스오버 음악은 대중음악과 클래식 음악의 결합도 시도

20

하이테크, Hi-Tech

하이테크는 하이테크놀로지의 약칭으로 최첨단 기술로 빠른 비트와 다양한 물성(物性)을 실현하며 현시대를 대변한다.

최첨단 과학기술

하이테크는 하이테크놀로지(Hi-technology)의 축약어로 고도의 과학을 첨단 제품의 생산에 적용하는 기술 형태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고급 기술', '첨단 기술', '컴퓨터' 등이 통신 기술과 결합하면서 제품 디자인은 극도로 세련되고 변칙거리는 느낌을 준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하이테크의 근원은 러시아 구성주의와 이탈리아 미래주의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예술자들은 속도와 역동성, 테크놀로지, 기계 등에 확고한 믿음을 두고 회화, 조각, 건축, 패션, 인테리어, 영상, 음악, 그래픽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전성과 실험성을 선보였다.

사회는 기술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떤 도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사회의 구성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인간은 정착하면서 기술이 더욱 고도화했다. 그러다 보니 점차 소통 수단이 곧 내용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마셜 매클루언이 "미디어가 메시지를"라고 언급했듯이 미디어 기술이 곧 메시지가 되어 우리의 감각을 확장하고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제 사람들은 메시지의 내용보다 기술의 변화에 더 집중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다양한 물성의 조화

테크노란 용어는 사실 오래전 전자 음악에서 사용해 왔다. 일명 '테크노 뮤직'이라 부른다. 이 음악의 특징은 같은 음의 반복 리듬을 만들어 내고, 매우 강하고 격렬한 기계음을 내는 것이다. 빠른 반복 음은 사람들에게 중독성을 만들고 댄스에 적합하다. 지금도 클럽 음악, 댄스 음악 등의 장르로 신시사이저, 컴퓨터로 작곡된 노래와 음악이 산출되고 있다.

패션은 첨단 소재의 기술적 발전으로 의복 형태에도 변화를 가져와 단순하고 현대적 감각의 기능주의 패션을 확산시켰다. 특히 주 5일 근무와 수업이 시작되면서 현대인들에게 여가와 취미 생활은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다. 아옷도어 의류들이 인기를 끌면서 등산복, 캠핑, 사이클 등의 레저, 스포츠 의류가 첨단 소재로 고급화했다.

하이테크는 기계화, 미래 지향적 이미지로 전자제품 광고의 단골 콘셉트다. 스마트폰, 카메라, 내비게이션 등의 제품 광고 영상에는 3D 공간에 빛과 우주공간, 가상공간을 연출하여 영화적 기법으로 제품의 기술을 보여 준다. 블랙 배경에 레이저빔 효과나 3D 카메라 디스플레이는 최첨단 기술을 시각화한다. 또한 요즘 사람들은 세상을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통해 보는 시간이 많아져 투명 소재